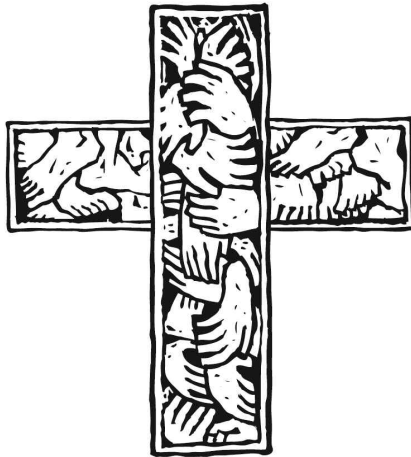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2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계절에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대의 어둠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조금씩 내몰고 시대의 빛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겨울이 깊어질수록 추위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노래가 있는 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온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눅1:78b-79 인도자
 ▲ 교 독 문 116. 구주 강림(2)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10.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 함께
 ▲ 성경봉독 말 3:1-5 I. 인도자
 II. 송정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I. 작은 불꽃 하나가 마중물 찬양대
 II. 마라나타(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청파 찬양대

말씀 기다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01.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참되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주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리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막연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다함께:	아멘.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가슴 벅차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당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인도네시아 슬라베시 긴급구호 활동보고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개척자들>은 그곳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청파교회는 그 활동에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10월 7일자 보고 중에서 (보고자 : 익산 간사)

동갈라 해변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재난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바로 2016년 아체주 피디 자야에 있었던 지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기는 끊겼고, 무너진 집 옆으로 천막을 연결해 잠자리와 쉴 곳들이 임시로 만들어진... 그렇지만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16일자 보고 중에서 (보고자 : 유복희 간사)

이제 이곳은 긴급 대응을 마치고 일상의 회복 단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후에는 재정착을 위한 임시 거처와 장기적인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상 회복이라고 함은 금이 가거나 중간 정도 부서진 공공건물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과 학교나 보건소 등 공공건물이 문을 열고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시로 텐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 저는 그곳에서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을 이곳 친구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익산은 지역의 공공건물들의 해체를 돕고 정리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아직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통신이 두절된 곳이어서 일주일간 소식을 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0월 17일자 보고 중에서 (보고자 : 유복희 간사)

이런 재난 지역에 와 있으면 평소에 생각했던 평화의 이미지가 더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상에 둘러 앉아 함께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나 그럴 수 없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짓는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눈물이 가려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가족을 위해

어렵게 어렵게 힘을 내십니다. 마음에 상처들을 안고 급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10월 21일자 보고 중에서 (보고자 : 유복희 간사)

아이들은 변화된 일상에 적응이 빠릅니다. 무너진 학교 더미 옆으로 세워진 임시 천막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오전, 오후로 진행되는 시간 이외에도 천막 안에서는 끊임없이 웃음과 소란이 진동합니다. 수업을 마치면 우리 모두는 계곡의 강으로 뛰어 듭니다. 물살이 꽤 썰서 아이들이 염려가 됐지만, 그런 난 중심을 잃고 굴러 자갈들에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강물을 타자 조릅니다.

11월 6일자 보고 중에서 (보고자 : 익산 간사)

아체에서 솔라베시로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며 새로운 가족들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긴급대응의 마지막 작업인 재건과 회복을 위한 단계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의 도착을 아이들과 공용 부엌을 지키던 인부들이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환대는 마치 제가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임시 천막 안에서 아이들이 다시 웃고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11월 16일자 보고 중에서 (보고자 : 유복희 간사)

임시로 지은 집들이 복구되고 학교가 지어지려면 아마도 2년은 걸릴 것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마을이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용을 일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 안에 크리스천과 모슬렘이 함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문제를 풀고 함께 놀이를 합니다. 함께 작업을 한 살루아 마을 풍경에는 교회와 모스크가 나란히 한 개씩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하나 더 그리면서 다른 친구에게 모스크도 하나 더 그리라 합니다. ... 저는 이 마을에서 인간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 개척자들

■ 마음으로 읽는 글 ■

밥

- 천양희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국지연 권미숙 권미정 권선원 김광일 이부용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미숙 김선희 김성순 김숙희 김애순 김예준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정기
 김정길 최숙화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정영우 김진옥 김진우 임미진 김형근
 김혜영a 노연정 문복순 박기영 박미연 박상옥 임서영 박숙미 박옥순 박창운
 허정윤 박태영 박해숙 배삼순 백성래 서동우 성유경 성지현 소광섭 신현일
 심상숙 안길상 이형숙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원용일 최현선
 윤영미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수자 이순이 이영미 이완구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a 이행진 이호원
 임고은 임성택 홍순위 임진엽 임창선 장기환 장현희 정두리 정성식 정연희
 정영례 정종삼 조경자 조병무 송양진 최영민 이상미 최옥분 최옥자 최윤선
 최윤희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한선희 허명선
 허진영 홍순구 안홍숙 홍윤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혜린 김나름 김성수 김와니 권윤경 김중수 김지혁 방민지 김태정 문홍일
 박재영 이현정 박지혜 소병화 박창운 허정윤 송남필 송남철 송남우 신미라
 양찬승 오복순 이건호 김보민 이광재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자애 임혜진 정구봉 정학성 김현숙 조두희 오연훈 최형민 한훈식
 권채영 무명8

생일감사헌금

강상연 김선희 설재용 송양진 이상진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영희 김향자 문복순 민화평 김미란 윤선호 무명3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당회 : 당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18세 이상의 입교교인은 모두 당회원입니다.
2. 입교교육 : 성탄절에 입교하길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2월 15일(토) 오후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입교교육 대상자는 유아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이 된 사람입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 올해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12월 16일까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폼 <https://goo.gl/forms/YZVDTDKZOVV0moRx1> 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은 내년 1월에 합니다.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5. 전화번호 수정 :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서식에 새로운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결혼 : 문병욱 씨와 신미정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5일(토) 낮 12시 밀알학교(일원동)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7. 신앙실천 : 대림절 초를 밝히고 기다림의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렘 23:3~8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신진식	이현정

12월	1부 영접위원	안현숙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최승주	박상규	서정순	정재기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안정숙	이혜령	박소현	이수정	이미영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다음주식당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박분민	이경준	김정우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안종일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